

# 법인세 감소...세수 9,500억 줄었다

### 국감연장

〈광주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가 올 8월까지 전년 대비 9,500억원(8.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한전이 1조 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3,600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탈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인해 2018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조1,000억원,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1조1,700억원이 나면서 법인세

### 건설·제조 주요업종 실적부진 전년보다 줄어 자발적 신고유도...기업 기살리기 세정지원도

를 2년 연속 한 푼도 못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업도 실적이 안 좋고, 8월까지 세수 실적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유류세는 교통세이므로, 교통세는 회복될 예정인데, 광주청의 법인세가 4,500억원가량이 줄었으므로 법인세는 마찬가지로 세수실적이 안 좋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수와 관련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 광주청장은 "법인세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따라 광주국세청은 세원관리를 자발적 신고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자발적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지식 부족한 납세자도 어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자체 제작, 현지장구 운영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들의 기 살리기 위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규제 취약분야·업종을 조기 파악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중지, 신고내용 확인 제의 등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 도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변칙탈세 등 불공정 탈세·고액체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은 관리자 중심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은닉재산 신고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징수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5개 본부(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수색 등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이어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조세 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전남 1,196억원 생산 감소”

### 윤후덕 의원 광주국세청 국감서 지적

일본의 수출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주요 업종의 수입이 감소해 전체 산업부문에 1,196억5,500만원 규모의 생산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경기 파주갑)은 1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에 대

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지역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수입액이 2,787만5,000달러, 기계류 제품은 813만9,000달러 수준의 수입액 감소가 예상된다. 전남은 화학공업제품·기계류 제품 부

문에서 5,739만9,000달러 수준의 수입 감소가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제품 수입감소로 인해 전체 산업부문에 419억1,400만원 수준의 생산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지역도 화학제품, 기계류 제품의 수입 감소로 777억4,100만원 규모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지역 전체로는 1196억 5,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윤 의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피해기업 정보 수집과 세정지원 등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신고 기업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납세유예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서미애 기자

## 농어촌공사,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 모색

### 4차 산업혁명 대비 세미나 개최 스마트물관리시스템 필요성 주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어촌연구원 등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의 적용 가능 기술을 파악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략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내용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소개와 참여방안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기술개발 ▲농업기계화 단지 조성 ▲GSI국제표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확 후 가공장 기술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방안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시간에서 김대영 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 정립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농어촌연구원 등에서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조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지표수를 활용한 적기, 적량의 물 공급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며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공사 관계자는 17일 “농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현황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 삼성 브랜드가치 ‘600억 달러’ 돌파

### 작년보다 2% 증가 순위 유지...현대차 36위·기아차 78위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600억달러를 넘어 세계 6위에 랭크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17일 발표한 ‘2019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와 같은 6위에 오르면서 8년 연속 ‘톱 10’에 포함됐다. 삼성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610억 9,800만달러(약 72조3,000억원)로, 지난해(598억9,000만달러)보다 2%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에는 17위였으나 이후 ▲2012년 9위(329억달러) ▲2013년 8위

(396억달러) ▲2014년 7위(455억달러) ▲2015년 7위(453억달러) ▲2016년 7위(518억달러) ▲2017년 6위(562억달러) 등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6위 자리를 지켰다. 아시아 국가의 브랜드 가운데서는 일본 도요타(7위·562억4,600만달러)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올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141억5,600만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하며 36위 자리를 지켰고, 기아차는 7% 감소한 64억2,800만달러로 7계단 하락한 78위에 그쳤다. 삼성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5위였고, 현대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혼다, 포드에 이어 6위였다. 이들 100위 내에 든 3개 한국 브랜드의 가치는 총 816억8,2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 국가별 브랜드 가치 총액으로는 5번째로 많았다.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은 2조1,30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 가치 1위는 작년보다 9% 늘어난 2,342억4,100만달러의 애플이었고, 구글이 8% 증가한 1,677억1,3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업체는 7년 연속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아마존(1,252억6,300만달러)이 무려 24%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록하면서 역시 3위를 유지했다. 이밖에 우버가 57억1,400만달러로 87위, 링크트린이 48억3,600만달러로 98위를 각각 기록하며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콜센터’ 선정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한국표준협회 주관한 ‘2019 한국콜센터품질지수(KS-CQI)’ 평가에서 가전·휴대전화 상담 서비스 1위 업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전문가의 전화 모니터링과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콜센터의 상담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담 서비스와 ‘실시간 맞춤형 채팅 상담’, ‘보이는 원격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상담사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상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제품 데스크탑’ 등도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코나 독일서 소형 디젤SUV 평가 1위

###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등 4개 부문에서 최고점수

현대자동차는 소형SUV ‘코나’가 독일의 유명 자동차 잡지 ‘아웃도 빌트(Auto Bild)’에서 실시한 소형 디젤 SUV 4종 비교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아우토 빌트 최근 호에 실린 이번 평가는 유럽에서 판매중인 소형 디젤 SUV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나는 차체, 주행 성능, 주행 안락함, 차량 연결성, 친환경 등 7개 부문 평가 결과 총 750점 만점에 503점을 얻어 종합 1위를 차지해 마쯔다 CX-3(481점), 예코스포트(465점), 터스터(456점)를 제쳤다. 부문별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코나는 차체 부문에서는 전석 공간, 다음 도성, 품질감, 기능성에서 최고점을 얻었고 파워트레인 부문의 발전가속, 주월성능, 최고속도, NVH, 변속기, 항속거리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와함께 주행 안락함 부문의 전후측 시트컴포트, 승차용이성, 조작용이성, 제동소음, 공조시스템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우토 빌트는 코나에 대해 “우수한

스타일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 파워트레인, 주행성능까지 차 전반에서 성숙함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다”며 “다양한 기본장비 및 첨단안전장치 원시스템(ADAS) 적용이 됐지만 조작이 간편하고 힘있는 엔진과 우수한 성능의 7단 DCT를 갖춘 차다”고 평가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자이퉁,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와 함께 독일의 3대 자동차 매거진으로,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아우토 빌트는 지난 7월에도 소형 가솔린 SUV 4개 모델(현대차 코나, 르노 캡처, 다치아 터스터, 오펜로프 스텔라)에 대한 비교평가를 진행해 코나를 1위로 선정했으며 같은달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의 EV평가에서도 코나 EV는 BMW의 ‘i3s’를 제치고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코나는 유럽시장에서 2017년 9,976대, 2018년 7만565대가 판매됐으며, 올해는 9월까지 7만 9,943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대비 53.1% 성장, 이미 작년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김용현 기자



현대자동차 코나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웃도 빌트’에서 실시한 소형 디젤 SUV 비교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현대차 제공

## 아시아나, 항공기 A350 10호기 도입

###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경쟁력 높여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비행에 최적화된 에어버스 A350-900 10호기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A350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 장거리 노선 공급을 전체 공급의 60%까지 늘려 장거리 중심 네트워크 항공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료 효율성이 25% 이상 뛰어난 A350을 중장거리 노선에 전전 후로 투입하고 있다. 동남아 노선인 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노선 뿐만 아니라, 장거리 노선인 유럽, 런던, 파리 노선을 비롯해 미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오는 28일 취항하는 포르투갈 리스본 노선에 도입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메인에서 에어버스가 개최한 A350XWB 심포지엄에서 2018년~2019년 A350을 운영하는 전세계 항공사중 ‘운영 신뢰도 최우수’ 수상 항공사로 선정됐다. A350은 전세계 29개 항공사가 약 302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A350 지속 도입으로 기존 세대교체에 속도를 낸다. 중장거리 노선에는 연료 효율성이 높은 A350이 주로 투입해 수익성을 높이고 단거리 노선에는 올해 첫 도입한 A321NEO를 투입해 노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A350은 30대, A321NEO는 25대를 순차 도입한다. /김용현 기자